DBpia

신라 약재명 목간에 대한 분석

저자
(Authors)

이현숙

출처
(Source)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 2009.7, 107-11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6290

APA Style

이현숙 (2009). 신라 약재명 목간에 대한 분석.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107-11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약재명 목간에 대한 분석

이현숙(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머리말
2.월성해자 출토 약재명 목간
3.안압지 출토 약재명 목간
4.맺음말

1.머리말

신라 의학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한국 의학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성과에서 고대 의학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는데,[1] 21세기 들어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그 자료는 대부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한중일의 고대 사서와 의학서에 의지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고대 목간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신라의 목간 가운데 약재명을 기록한 의약관련 목간이 동국대 윤선태 교수에 의해 확인되었다.[3] 그 대표적인 것으로 경주의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167번 목간과 안압지에서 발굴된 198번 목간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4]

그러나 목간의 판독이나 이에 관한 명칭과 해석 등등에 관해서 연구자 간에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의약 관련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2개의 목간을 약물명 목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5] 약물이 약재를 이루는 물질이라는 의미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약재명 목간이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 의학에 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는 선학의 연구에 힘입어 목간에 기록된 신라 의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장 많이 출토된 안압지에 관한 [6] 월성 해자[7]

---

1) 김두종, 한국의학사:상세편, 탐구당, 1956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대판:자가출판, 1962.
2) 이현숙, 신라의학사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
3)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4) 이용현, “ 안압지 목간과 東宮 주변”, 『역사와 현실』65, 2007 ; 三上喜孝, “慶州雁鴨池出土の藥物名 木簡について”, 『韓國出土木簡の世界』(朝鮮文化研究所 編, 東京:雄山閣), 2007
5) 三上喜孝, 앞 책, 308쪽.
6) 이기동, “雁鴨池에서 出土된 新羅木簡에 대하여”, 『경북사학』1, 1979 ; 이용현, “ 안압지 목간과 東宮 주변”, 『역사와 현실』제65호, 2007, 254 ; 이문기, “雁鴨池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宮廷業務”, 韓國古代史研究39, 2005 ; 윤선태, “雁鴨池 出土 ‘ 門號木簡 ’과 新羅 東宮의 警備”, 『韓國古代史研究』44. 2006.
高敬姬, “雁鴨池 名稱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志』16집, 2000 ; 이용현,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 생활”, 『구결학보』, 2007, 109
7)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 李京燮, “新羅 月城垓子 木簡의 출토상황과 月城 周邊의 景觀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200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2(KST)

2.월성해자 출토 약재명 목간

월성을 둘러쌌던 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은 모두 20여점으로서 그 중심연대는 6세기 초에서 7세기이다.[8] 이 가운데 약재명이 적혀있는 것은 167번 목간(15.0x2.2x1.3cm)으로서, 상단부만 남아있고, 하단부는 파손되었다.[9] 사면에 걸쳐 글자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간에 대한 현재의 판독은 다음과 같다.[10]

(1면) 天雄二兩　　萵(이하결실)
(2면) △△子赤 △△△(이하결실)
(3면) △△二兩 △△ (이하 결실)
(4면) (판독불능)

신라의 목간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차례로 써가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목간은 약재명과 그 중량이 사면 가득 씌어져 있는 처방전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1면에 천웅으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1면인지 아니면 판독불능인 4면이 시작인지 실물을 보지 못한 필자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사진으로 짐작해 보건대 1면이 4면보다 매끄러워 시작면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방전을 쓸 때, 일반적으로 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시작하여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의 중량 순서로 나열한다. 이렇게 보면 천웅을 위시하여 3면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약재들의 중량이 2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천웅은 附子의 종류로서 독성이 강하다.[11] 烏頭, 천웅, 烏喙, 부자, 側子는 다 같은 것이지만, 약재로 채취한 계절과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고 한다.[12]

윤선태 교수는 천웅 다음을 萵苣, 즉 상추라고 파악하여, 열선전에 나오는 南郡人 谿父가 육계 부자 지실을 섞어 복용하였다는 것에 근거하여 도교 계통의 선약 처방으로 보았다. 그러나 추는 확실한 판독이 아니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2냥으로 대부분의 약재를 구성하는 처방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당시 신라의학은 위진남북조의 의학서나 당 초기에 편찬된 천금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금방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처방을 망라하고 있으며, 종합의서로서 동아시아 중세 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천웅은 천금방에 따르면 원지를 보조로 사용한다고 하였다.[13] [14]

---

8) 이용현,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2006, 203쪽.
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간』, (http://www.ccp.go.kr/book/book_view.jsp에서 인용)
10) 윤선태, 앞 글, 124쪽의 것을 전재한 것임.
11) 『신농본초경』, 초부 상품, "天雄 味辛溫. 主治大風, 寒濕痹, 曆節痛, 拘攣緩急, 破積聚, 邪氣, 金創, 强筋骨, 輕身健行. 一名白幕. 生山穀"
12) 『神農本草經』, "《蜀本草》: 附子、乌头、天雄、乌喙、侧子, 五物同出而异名。作之法, 以生熟汤浸半日, 勿令灭气, 出以白灰裹之, 数易使干。又法以米粥及糟曲等淹之, 并不及前法。"(http://www.hudong.com에서 재인용)
13) 草藥下部 ... 天雄 (遠志為使, 惡腐婢)
14) "黃酒治風虛腳疼痿弱, 氣悶不自收攝兼補方。 黃 秦艽 川椒 乾薑 獨活 白朮川芎 蒞蓉 細辛 牛膝 (各三兩) 葛根 當 歸 (各三兩半) 甘草 (三兩) 山萸 桂心 (各二兩) 菖蒲 (二兩半) 柏子仁 天雄 鐘 乳防風 (各二兩) 大黃 (一兩) 烏頭 (三兩) 石斛 (二兩) 石南 (一兩) 附子 (三兩) 上二十五味 咀, 無所熬煉, 清酒三斗漬之。先食服一合, 不知可至五合, 日三。以攻 痺為佳, 大虛加蒞蓉, 下利加女萎, 多忘加菖蒲, 各三兩。 (胡洽有茯苓二兩, 澤瀉三兩, 人參、茵芋、半夏、栝蔞、芍藥各一兩, 無秦艽、川芎、牛膝、蒞蓉、甘草、葛根、當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2(KST)

15)

3. 안압지 출토 약재명 목간

안압지 출토 198번 목간은 4면체 막대형 목간 이른바 觚(네모)로서, 4면 가득 약재명이 적혀져있다. 안압지 목간의 중심시기는 8세기라고 한다. 먼저 판독에 2가지가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윤선태
(전면)대황1냥, △△1냥, 靑△1냥, △△1냥, △△1냥(△작은 글씨) 胡△△△ 石△1냥, △△3냥, △
(후면)△△△△ 靑木향1냥 △子1냥, 臘油 3分 (결락)
이 역시 도교의 단약 계통으로 파악

②三上喜孝
大黃 1냥 黃連 1냥 皂角 1냥 靑黛 1냥, 升麻 1냥
甘草 1냥 胡同律1냥, 朴硝 1냥, △△△1냥,
△△△△, 靑木香 1냥, 支子1냥 藍淀 3分
三上喜孝는 당시 유행하던 천연두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는 의미가 있는 제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신라와 일본은 두창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735년부터 737년까지 3년간 인구의 반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의학적 대응책으로서 일본은 미간에서 따라하기 쉬운 처방을 널리 알렸으니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일본은 735년 두창의 유행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하자 의료를 담당하던 전약료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작성하였고, 태정관부는 이를 각 국사(國司)에 이를 송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의 자료이다.

전약료에서 포창을 치료하는 처방을 살펴서 알림

【상한(傷寒) 뒤의 금지해야 할 음식】
물을 마시지 말 것(心胞가 손상되어 손바닥에 뜸을 뜨면 누울 수가 없음)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죽게 된다.
또 살찌거나 기름진 생선회, 날 생선 종류를 먹어서는 안된다. 잉어, 다랑어, 새우, 청어, 삼치, 연어, 농어는 설사를 유발하여 다시 구제할 수 없게 한다.
또 오신채를 먹으면 눈의 정기를 잃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또 여러 생 나물과 과실은 오히려 熱이 나게 한다.
또 산 생선을 먹고 술을 마시지 말라. 설사가 나서 고치기 어렵다.

歸、菖蒲、鐘乳、大黃, 為二十二味, 名大黃 湯)“
15) 당 王燾, 찬, 外台秘要·권 39, "延年療頭風白屑風癢, 長發膏方。 蔓荊子 附子 (去皮) 澤蘭 防風杏仁 (去皮) 零陵香 藿香 芎 外台秘要唐·王燾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2(KST)

또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로) 고치기 어렵다.
또 마늘과 생선회를 함께 먹으면 사람이 상하고, 오이와 생선회를 함께 먹으면 병이 발생한다.
또 술을 마시면 음양이 다시 병들어 반드시 죽게 되고, 생약도 음양을 다시 병들게 하므로 죽는다.
병이 나은 뒤에 크게 꺼려야 할 것은 음식과 술을 많이 먹거나 마시는 것과, 취한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다.

【상한(傷寒) 완두창(豌豆病)을 치료하는 처방】
처음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대황(大黃) 5냥을 끓여서 먹는다.
또 청목향(靑木香) 2냥을 물 3승과 함께 넣고 달여서 1승이 되면 한꺼번에 마신다.
또 호밀을 삼씨 같이 난 종기(瘡) 위에 바른다. 또 황련 3냥을 물 2승과 함께 끓여서 8홉이 되면 복용한다.
또 소두(小豆) 가루를 계란 흰자와 함께 붙인다.
또 월경즙을 물에 타서 (환부를) 씻는다.
또 부인의 월경포로 어린 아이를 닦아준다.

【완두창이 사라진 뒤의 흉터】
황토 가루를 위에 바른다.
또 매똥으로 만든 흙과 돼지기름을 섞어서 그 위에 바른다.
또 호분(胡粉)을 위에 바른다.
또 흰 누에 말린 것을 마른다.
또 꿀을 바른다.

앞의 것은 임금의 명에 의해 살펴 알리는 것이다.
천평(天平) 9년 6월일[16]

두창이라는 명칭은 콩알만한 종기가 전신에 퍼지는 특징을 묘사한 병명이다. 당시에는 주로 완두창이라고 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보건대, 일본은 완두창이 대유행하자 그 증세와 치료약, 그리고 금기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여 각 지방에 내려보내 일반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완두창은 상한병(傷寒病)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는데, 금기하는 음식과 치료 내용은 680년경 편찬된 당 의학서『千金方』에 있는 내용을 준거로 한 것이었다.[17] 특히 두창 치료법은 가운데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처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거의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금방』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회복한 뒤 금기에 관해서는 유달리 생선류에 관한 언급이 많다. 즉『천금방』에서는 육류와 생선류를 같이 언급하였는데,[18] 여기에서는 생선류가 주된 금기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섬 지방인 일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당 의학이 일본에 전래되어 토착화되어가는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세기 신라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신라는 아마도 일본에 앞서 두창이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두창을 전해준 것이 바로 신라였기 때문이다. 신라 8세기의

16) "[典藥寮勘申 疱瘡治方事]傷寒後禁食：勿飮水(損心胞掌灸不能臥). 大飮食, 病後致死. 又勿食肥魚膩魚鱠生魚類, ...傷寒豌豆病治方：初發覺欲作, 則大黃五兩服之. 又靑木香二量, 水三升, 煮取一升頓服. 又取好密通身麻子瘡上. 又黃連三兩, 以水二升, 煮取八合服之. 又小豆粉, 和鷄子白付之. 又取月汁, 水和浴之. 又婦人月布拭小兒. 右依宣旨勘申, 天平九年六月日",『朝野群載』권21, 凶事 ; 富士川游(1904),『日本醫學史』, 63쪽에서 재인용.
17) 금기 음식에 관해서는 『千金方』 권 10, 勞復2(1998, 北京:人民衛生出版社 간행본, 191쪽), 처방에 관해서는 권10, 傷寒雜治 7(앞 책, 188-191쪽)의 내용을 준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食猪肉及羊血, 肥魚油膩等, 必當大下利, 醫所不能治也", 『千金方』권10, 勞復2(앞 책, 19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2(KST)

상황을 보면, 경덕왕대가 가장 두창이 치성한 시점이었다.

(경덕왕 6년) 가을에 가물고 겨울에 눈이 오지 아니하고 민간에 기근이 있고 또 疫疾이 돌았다. (그리하여 왕이) 사람을 10道에 보내어 安撫케 하였다.

이 때의 역병은 두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덕왕은 약사여래상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신민에게 의약을 분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니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① 을미(755년, 경덕왕 14) 분황사에 약사여래불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30만 6천 7백근이요, 장인은 본피부(本皮部)의 강고(强古) 나말(乃末)이었다.[19]

② 경덕왕 때에 한기리(漢岐里)에 희명(希明)이라는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난지, 5년만에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左殿) 북쪽 벽에 걸린 천수관음 앞에 나가 노래를 지어 아이를 시켜 빌게 하였더니 멀었던 눈이 마침내 보이게 되었다.[20]

③ 명주(冥州: 강릉)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굶주렸다. 진표(眞表) 율사(律師)는 이들을 위하여 계법을 설하니 사람마다 받들어 삼보(三寶)에 공경을 다하였다. 갑자기 고성(高城) 바닷가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저절로 나와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먹을 것을 장만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21]

경덕왕이 분황사에 약사여래불의 동상을 세운 시기는 755년으로서, 봄부터 기근이 들고 민간에 질병이 유행하던 때이다. 즉 웅천주, 현재의 공주에 사는 향덕이 그 어머니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할고하던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료 ②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 한기리에 살던 희명이란 여자아이가 눈병이 났을 때, 고쳐달라고 빌던 곳이 바로 분황사에 있던 천수관음보살상이었다. 이로 보건대, 희명의 일은 분황사에 약사여래불이 조성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①·②의 자료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 병이 났을 경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로써 치유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22] 아마도 분황사에 희명과 같이 병을 고치고자하는 절박한 기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간의 기도처로서 분황사가 상당히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간 설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755년(경덕왕 14)의 분황사 약사여래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3]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천수관음보다는 약사여래가 병을 고치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주 동천리(東川里)에 소

19) 『三國遺事』 탑상 4, 芬皇寺藥師條.
20) 『三國遺事』 탑상4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條.
21) 『三國遺事』, 義解 5, 關東楓岳鉢淵藪石記條.
22) 일본의 경우 8세기부터 藥師悔過의식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행하여졌다. 약사불의 안치는 8,9세기 사찰에서 약사회과 의식이 유행하였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가장 이른 聖武天皇 天平 16년(744)부터 仁明天皇 承和 4년(837)까지 기록이 남아있다. 『類聚國史』 권178, 佛道5, 藥師悔過條.
23) 현재 이 약사불은 아직도 경주 분황사 법당에 보존되어 있는데, 18세기 전반에 대대적으로 수리된 상태라고 한다. 문명대(1980), 『한국조각사』, 열화당, 203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2(KST)

재하고 있는 굴불사지의 사면석불도 경덕왕대에 조성되었는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사면불의 유형과는 다르게 특별히 약사불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경덕왕대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약사불을 조성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③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덕왕대 명주 지방에 기근이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법상종 승려 진표의 전법(傳法) 활동과 관련한 설화이다. 이를 통해 경덕왕대의 기근과 전염병에 관련하여 사찰과 승려에 관한 설화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약사여래불은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하며, 전통적으로 신라에서는 승려들이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약사경』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불교사원과 승려가 병을 치료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은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과 신부가 역임한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덕왕대의 분황사와 굴불사에 약사상을 새롭게 안치하였던 사실에서, 민심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약사신앙을 장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24]

그런데 경덕왕 14년 봄에 곡식이 귀하여 민간에 기근이 있었다. 熊川州의 向德은 어머니가 종기가 났는데 자기의 다리의 살을 떼어 먹여 치료하였다고 하여 경덕왕이 그 門閭를 旌表하였다. 이는 민간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황은 두창 치료에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그렇다면 안압지 198번 목간의 처방은 대황이 1냥 9푼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황이 주재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여러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이는 보조 약재로서 왕궁에서 사용하는 처방이기 이처럼 다양한 약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국사기 경덕왕 19년 다음의 자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덕왕 19년) 정월에 都城[도성:金城(금성)] 寅方[인방:東方(동방)]에서 북치는 소리와 같은 것이 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鬼神(귀신)의 북이라 하였다. ○ 2월에 宮中(궁중)에 큰 못을 팠고, 또 宮(궁) 남쪽 蚊川(문천) 위엔 月淨橋(월정교)·春陽橋(춘양교) 두 다리를 놓았다. [25]

전근대사회에서 역병이 유행하면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한편 개천이 쌓인 독기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혹 경덕왕 19년의 월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러한 인식 하에 시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4) 이와 관련된 삼국사기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경덕왕 7년) 정월에 天狗[천구:星名(성명)]가 땅에 떨어졌다. ○ 8월에 太后[태후:孝成王妃(효성왕비)]가 永明新宮(영명신궁)에 移居(이거)하였다. (경덕왕 11년) 8월에 東宮衙官(동궁아관)을 두었다. (경덕왕 13년) 8월에 가뭄과 누리가 있었다. ○ 侍中(시중) 朝良(조량)이 퇴직하였다”

25) 慶州(경주) 古跡條(고적조)에 '日精橋一云春陽橋, 舊在府東南蚊川上, 月精橋, 舊在府西南蚊川上, 兩橋遣址尙存'이라 한 것이 즉 이것이니, 이와 같이 後世(후세)에 月淨橋(월정교)는 月精橋(월정교)로, 春陽橋(춘양교)는 日精橋(일정교)로 書稱(서칭)하였다. 지금에도 月城(월성) 南(남) 蚊川沿岸(문천연안)에 그 遺址(유지)가 있어, 東(동)을 日精(일정), 西(서)를 月精橋(월정교)라고 하거니와 지금에는 단지 그 石橋(석교)의 橋基(교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42(KST)